



우리 강아지 가이드북

입양 준비부터 건강·훈련·응급·비용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강아지 케어 가이드



멍케어

우리 아이 맞춤형 AI의 시작

목차

PART 1	입양 전·후 준비	4
PART 2	시기별 성장 가이드	14
PART 3	먹이기 · 영양	21
PART 4	건강 관리	31
PART 5	위생 · 미용	48
PART 6	훈련 · 행동 교육	55
PART 7	산책 · 놀이 · 운동	65
PART 8	생활 환경 · 외출 · 여행	72
PART 9	비용 · 행정 · 법규	77
PART 10	특별한 순간들	84
부록	FAQ · 용어 사전	89
소개	멍케어 소개	94

이용 안내 및 면책

i 꼭 읽어주세요

- 이 가이드북은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건강 문제, 접종·구충 일정, 약물, 수술, 식이 변경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 동물등록, 과태료, 맹견 관리, 검역 등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지자체·관계 기관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 응급 상황에서는 이 책을 찾기보다 먼저 가까운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
- 멍케어 앱의 기능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책 보는 방법

-  **키워드 카드** 핵심 내용을 한 장씩 카드로 정리했어요
-  **빨간 박스**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  **노란 박스** 면책·안내
-  **점선 박스** 실천 체크리스트
-  **파란 카드** 멍케어 앱과 연결되는 기능

01

PART 1



입양 전·후 준비

강아지는 10~15년을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데려오기 전 점검과 첫 한 달 적응이 평생 관계를 좌우해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 1-1 입양 전 자가진단
- 1-2 견종·크기 고르기
- 1-3 입양 경로와 확인 사항
- 1-4 준비물 체크리스트
- 1-5 집 안 안전 점검 (강아지 눈높이로 보기)
- 1-6 데려오는 날부터 첫 한 달
- 1-7 초보 견주가 자주 하는 실수

1-1 입양 전 자가진단

시간

하루 산책·식사·배변·놀이·훈련에 최소 1~2시간 이상 필요해요. 어린 강아지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요

비용

사료·간식·용품·미용·예방접종·정기검진 외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 (수십~ 수백만 원)도 대비해야 해요

주거 환경

공동주택 규약(반려견 허용 여부), 층간·옆집 소음, 산책 환경, 집 안 미끄러운 바닥을 확인해요

가족 합의

가족 모두의 동의와 역할 분담(산책·식사·병원)을 정해요. 알레르기 여부도 미리 확인해요

장기 계획

출장·여행·이사·결혼·출산 같은 변화가 있어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돌봄 대안

내가 아플 때·집을 비울 때 맡길 사람이나 시설(펫시터·호텔)을 미리 정해 뒹요

입양 전 마지막 질문

"이 아이가 15살이 되어도, 내가 이사를 가도, 아파도 함께할 수 있나요?" 충동 입양은 파양·유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1-2 견종·크기 고르기

크기

소형·중형·대형에 따라 식사량·비용·공간·산책량·수명이 달라져요

털 종류

털 빠짐(이종모는 환절기 폭풍 털갈이), 미용 필요 여부(푸들·비숑 등은 정기 미용)

에너지

활동량이 많은 견종(보더콜리·리트리버 등)은 충분한 운동·두뇌 놀이가 필요해요

성격·훈련

초보자에게는 사람 지향적이고 훈련이 쉬운 편인 견종이 수월해요(개 체차는 커요)

유전 질환

견종별로 잘 생기는 질환(슬개골, 고관절, 심장, 눈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단두종

불독·퍼그 등은 호흡·더위에 취약해 여름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믹스견

믹스견·유기견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성견은 성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3 입양 경로와 확인 사항

보호소·입양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만날 수 있어요. 건강·행동 이력과 입양 절차(상담·서약)를 확인해요

브리더·분양처

부모견 정보, 건강검진·유전 검사 이력, 접종·구충 기록, 계약서(환불·책임 조건)를 서면으로 받아요

지인·개인 분양

가정에서 자란 환경은 장점이지만 건강·접종 기록 확인은 똑같이 필요해요

월령 확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의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너무 어린 분양은 건강·사회성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현장 체크

눈곱·콧물·설사 흔적 없는지, 털과 피부 상태, 활발함, 어미·형제와의 환경이 청결한지 직접 확인해요

! 이런 곳은 피하세요

아이를 직접 못 보게 하거나, 부모권·접종 기록을 보여주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현금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어린 강아지를 파는 곳

1-4 준비물 체크리스트

쉼터

케이지(크레이트)·울타리, 폭신한 방석, 담요

식사

연령에 맞는 사료, 밥그릇·물그릇(미끄럼 방지), 간식

배변

배변패드·배변판, 배변봉투, 탈취제(반려동물용)

외출

하네스(처음엔 가슴줄 추천), 리드줄(2m 이내), 인식표, 이동가방

위생

강아지 전용 샴푸·칫솔·치약, 빗, 발톱깎이, 귀 세정제, 수건

놀이

씹는 장난감(츄), 노즈워크 매트, 공·터그 장난감

건강

체중계, 체온계, 구급상자, 엘리자베스 칼라(병원 안내 시)

1-5 집 안 안전 점검 (강아지 눈높이로 보기)

전선·충전기

씹다가 감전·화상 위험. 케이블 커버나 높은 곳으로 정리해요

약·세제·화학물

사람 약(진통제 등), 세제, 부동액, 쥐약, 살충제는 닿지 않게 보관해요

위험 음식

초콜릿·포도·양파·자일리톨 껌 등은 식탁·가방·쓰레기통 속도 주의해요

독성 식물

철쭉, 은방울꽃, 소철, 튤립·수선화 구근 등은 반려견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작은 물건

양말·머리끈·건전지·동전·장난감 부품은 삼키면 장폐색 위험이 있어요

높은 곳·틈

소파·침대에서 뛰어내리기(특히 소형견 관절), 문틈·베란다 추락에 주의해요

1-6 데려오는 날부터 첫 한 달

이동

이동가방이나 안전벨트로 고정하고, 차 안에 아이만 두지 않아요

첫날

쉴 공간(케이지)을 보여주고 조용히 지내요. 킁킁대도 과하게 안아주기보다 차분하게 대해요

첫 일주일

손님·외출·목욕은 최소화하고 식사·배변·수면 리듬을 만들어 줘요. 이름을 자주 불러 주세요

첫 병원 방문

데려오고 1주일 안에 건강검진을 권장해요. 접종·구충 일정을 이때 상담해요

일과 만들기

같은 시간에 밥·배변·산책·낮잠. 일관된 규칙이 안정감을 줘요

하지 말 것

과한 스킨십, 억지로 안기, 큰 소리 혼내기, 갑작스런 사료·환경 변화



적응 기간 3-3-3 법칙

일반적으로 3일은 긴장, 3주는 적응, 3개월은 진짜 자기 집으로 느끼는 시기라고 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1-7 초보 견주가 자주 하는 실수

너무 많이 안아주기

계속 안겨 있으면 혼자 쉬는 법을 배우기 어려워요. 쉬는 시간을 꼭 주세요

깡깡덜 때마다 반응

요구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차분해졌을 때 칭찬하고 다가가요

일관성 없는 규칙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되면 혼란스러워해요. 가족 모두 같은 규칙을 써요

사회화 시기 놓치기

생후 3~14주의 경험이 평생 성격에 영향을 줘요

혼내서 가르치기

실수 후 혼내면 보호자를 무서워하고 몰래 실수하게 돼요

사료·간식 마구 바꾸기

잦은 변경은 배탈과 편식의 원인이 돼요

병원 미루기

"좀 지나면 낫겠지" 하다 작은 병이 커져요. 이상하면 먼저 상담하세요

입양 초기 팁

처음 한 달은 사진과 영상을 많이 남겨 두세요. 아기 강아지 시절은 금방 지나가요.

충동 입양·파양·유기는 안 돼요

입양 후 "생각보다 힘들다"는 이유로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계획을 세워요. 유기는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입양 첫날 낑낑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엄마·형제와 떨어져 낯선 곳에 적응하는 중이라서, 차분하게 곁을 지켜 주면 금방 안정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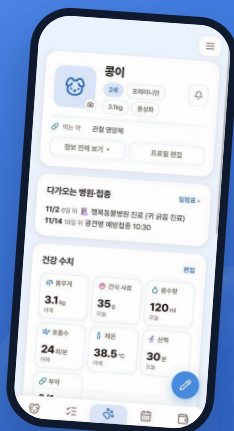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 · 입양 전·후 준비

- ☐ 가족 동의 및 역할 분담
- ☐ 주거 규약·소음 확인
- ☐ 예상 비용·비상금 계획
- ☐ 준비물(케이지·사료·배변·하네스) 구매
- ☐ 집 안 위험물 정리
- ☐ 가까운 병원·24시 응급병원 저장
- ☐ 입양 1주일 내 병원 방문 예약
- ☐ 동물등록(소유 후 30일 이내) 계획
- ☐ 집을 비울 때 맡길 대안 정하기

멍케어 앱 연결

AI 등록 프로필 기반 전담 케어

우리 아이의 이름·건강·나이·체중을 프로필로 등록해 두면, 입양 첫날부터 아이에게 맞춘 관리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02

PART 2



시기별 성장 가이드

월령마다 몸과 마음이 크게 달라져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알면 시행착오가 줄어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 2-1 성장 타임라인
- 2-2 강아지 나이, 사람 나이로는?
- 2-3 사회화: 가장 중요한 시기
- 2-4 이갈이와 사춘기 이해하기
- 2-5 강아지 수면

2-1 성장 타임라인

생후 ~2개월

특징 어미·형제와 지내며 기본 사회성을 배워요

꼭 할 일 2개월 전에는 분리하지 않아요(법적으로도 판매 금지)

2~4개월

특징 사회화 민감기(약 3~14주). 호기심이 폭발해요

꼭 할 일 사회화 시작, 배변 훈련, 기초 접종, 이름 부르기

4~6개월

특징 젓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요(이갈이). 입질이 심해져요

꼭 할 일 씹기 장난감, 입질 교육, 기본 훈련, 양치 습관

6~12개월

특징 청소년기. 에너지·고집이 늘고 성적 성숙이 와요

꼭 할 일 산책량 늘리기, 중성화 상담, 훈련 복습, 체중 관리

1~2세

특징 몸은 거의 성견. 소형은 1세, 대형은 18~24개월까지 성장해요

꼭 할 일 성견 사료 전환(수의사 상담), 정기검진 시작

2~7세

특징 안정적인 성견기

꼭 할 일 체중·치아 관리, 연 1회 이상 검진, 운동 유지

7세~

특징 노령기 시작(소형 10세, 대형 6~8세 전후)

꼭 할 일 6개월 검진, 관절·치아·시력·인지 관리, 환경 조정

2-2 강아지 나이, 사람 나이로는?

1세

사람의 약 15세 정도

2세

사람의 약 24세 정도

이후

소형견은 1년에 약 4세, 대형견은 약 5~7세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적으로 딱 맞는 공식은 없고 견종·크기에 따라 달라요. 대략적인 참고로만 봐 주세요.

2-3 사회화: 가장 중요한 시기

생후 약 3~14주는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화 민감기예요. 이 시기에 좋은 경험을 쌓으면 커서 겁·공격성이 줄어요.

- **사람:** 남녀노소, 모자·우산·휠체어 쓴 사람 등을 간식과 함께 만나요
- **소리:** 청소기·초인종·천동·자동차 소리를 작은 볼륨부터 들려줘요
- **환경:** 엘리베이터, 다양한 바닥(타일·잔디·나무), 이동가방·차량을 경험해요

- **다른 개:** 접종 완료 전에는 건강하고 접종이 끝난 개와만 안전하게 만나요
- **손길:** 발·귀·입·꼬리 만지기를 칭찬과 함께 연습해요(병원·미용 대비)

접종 완료 전 산책

기초 접종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개 배변이 있는 바닥 산책을 피하고, 안고 외출하거나 유모차·가방으로 세상을 보여주세요. 시작 시기는 수의사와 상담해요.

2-4 이갈이와 사춘기 이해하기

이갈이

유치 28개가 약 생후 3~7개월에 영구치 42개로 바뀌어요. 이때 무는 건 정상! 장난감으로 방향을 돌려요

사춘기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짓음·배변 실수가 늘 수 있어요. 혼내기보다 일관된 훈련을 반복해요

성적 성숙

소형은 6~9개월, 대형은 더 늦게 오는 편이에요. 중성화는 견종·성별·건강에 따라 달라 수의사와 상담해요

성장판

대형견 어린 시기 과격한 점프·계단·과체중은 관절에 부담이에요

2-5 강아지 수면

어린 퍼피

하루 수면(일반적 참고) 약 18~20시간

포인트 어릴수록 많이 자요. 자는 아이를 깨우지 않아요

성견

하루 수면(일반적 참고) 약 12~14시간

포인트 규칙적인 취침 시간이 도움돼요

노령견

하루 수면(일반적 참고)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포인트 갑자기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못 이루면 건강 문제일 수 있어요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자기만의 쉼터를 마련해 주세요. 밤에 킁킁대면 배변·추위·배고픔·불안을 먼저 확인해요.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면서 다리를 떨거나 작게 소리를 내는 건 대체로 정상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사회화 시기에는 무서워하는 것을 억지로 겪게 하기보다 간식과 칭찬으로 좋은 기억을 쌓아 주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겁이 줄어요.



알고 계셨나요?

생후 2~3개월 퍼피는 하루 18~20시간까지 자기도 해요. 졸려 보일 땐 조용한 곳에서 꼭 재워 주세요.



알고 계셨나요?

성장 속도는 아이마다 달라요. 또래와 조금 달라도 걱정하기 전에 체중·식욕·활력을 먼저 기록해 보세요.



알고 계셨나요?

생일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입양일을 '우리 집 생일'로 정해 매년 건강검진 날로 삼는 보호자도 많아요.



체크리스트 · 시기별 성장



현재 월령의 "꼭 할 일" 확인



사회화 경험(사람·소리·환경·손길) 체크



기초 접종 일정 예약



이갈이용 씹기 장난감 준비



성견 사료 전환 시기 수의사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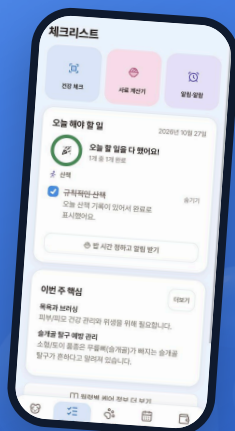


중성화 여부·시기 상담

 멍케어 앱 연결

시기별 전담 일정 및 팁

현재 성장 상태에 맞는 핵심 일정과 양육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아, 사회화·이갈이·접종 같은 때를 놓치지 않아요.



03

PART 3



먹이기 영양

잘 먹이는 것이 건강의 절반이에요. 사료 고르는 법부터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정리했어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 3-1 사료 종류
- 3-2 사료 라벨 읽는 법
- 3-3 얼마나, 몇 번 먹일까
- 3-4 사료 바꾸는 법 (7~10일)
- 3-5 간식과 물
- 3-6 먹으면 안 되는 음식
- +4 외 4개 주제

3-1 사료 종류

건식 사료

- 장점** 보관·급여 편리, 치아에 비교적 유리, 영양 균형
- 주의** 수분이 적어 물을 충분히 줘야 해요

습식 사료

- 장점** 기호성·수분 보충, 식욕 저하 시 도움
- 주의** 개봉 후 보관, 치석 관리 별도 필요

화식·수제식

- 장점** 신선한 재료, 기호성
- 주의** 영양 불균형 위험 → 수의사·영양 상담 필수

생식

- 장점** 일부 보호자가 선호
- 주의** 세균·기생충 위험이 있어 신중히,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

3-2 사료 라벨 읽는 법

단계 표시

퍼피(성장기)·어덜트·시니어, 전 연령용 중 우리 아이에 맞는 것을 골라요

영양 기준

AAFCO 등 영양 기준을 충족한 "완전 균형 식품"인지 확인해요

원료 순서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적혀 있어요. 주원료(단백질원)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성분표

조단백 · 조지방 · 조섬유 · 수분 · 회분 비율, 칼로리(kcal/kg)를 확인해요

알레르기

반복되는 가려움 · 귀 염증 · 설사가 있으면 특정 원료 알레르기도 의심해 병원과 상담해요

유통기한

제조일 · 유통기한과 개봉 후 소비 기간을 지키고, 밀폐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요

3-3 얼마나, 몇 번 먹일까

2~3개월

하루 급여 횟수(일반적) 4회

참고 소형견은 저혈당 위험이 있어 간격을 너무 벌리지 않아요

3~6개월

하루 급여 횟수(일반적) 3회

참고 포장지 퍼피용 권장량 기준

6개월 이후

하루 급여 횟수(일반적) 2회

참고 성견 전환 시기는 수의사와 상담

노령견

하루 급여 횟수(일반적) 2회 이상

참고 활동량·치아·체중에 맞춰 조절

- 급여량은 사료 포장지 권장량을 기준으로 체중·활동량·체형(BCS)에 맞게 조절해요
- 간식을 줬다면 그만큼 식사량을 줄여요
-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먹이고, 15~20분 후 남은 사료는 치워요
- 식후 바로 격한 운동은 피해요(특히 대형견 위염전 위험)
-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슬로우 피더를 사용해요

3-4 사료 바꾸는 법 (7~10일)

1~3일

기존 사료 75%

새 사료 25%

4~6일

기존 사료 50%

새 사료 50%

7~9일

기존 사료 25%

새 사료 75%

10일~

기존 사료 0%

새 사료 100%

변이 묽어지거나 구토가 있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 천천히 진행하고, 지속되면 병원에 가요.

3-5 간식과 물

간식 비율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 이내가 일반적이에요. 훈련용은 쌀알 크기로 잘게 줘요

물

깨끗한 물을 항상 마실 수 있게 하고 하루 1회 이상 교체해요. 하루 음수량은 체중 1kg당 약 50~60ml가 일반적인 참고치예요

물을 안 마실 때

물그릇 위치·종류를 바꿔 보고, 갑자기 마시는 양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병원에 상담해요

3-6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초콜릿·코코아·카페인

위험 테오브로민 중독

증상 예시 구토, 흥분, 떨림, 심박 증가

포도·건포도

위험 급성 신부전 위험(소량도 위험할 수 있음)

증상 예시 구토, 식욕 저하, 소변 감소

양파·파·부추·마늘

위험 적혈구 손상(빈혈)

증상 예시 잇몸 창백, 무기력, 소변색 변화

자일리톨(껌·사탕 등)

위험 저혈당·간 손상

증상 예시 구토, 비틀거림, 경련

마카다미아 등 견과류

위험 근육 떨림·구토

증상 예시 뒷다리 힘 빠짐, 열

알코올·날 반죽

위험 중독, 위 팽창

증상 예시 구토, 호흡 곤란, 복부 팽만

익힌 닭뼈·생선 가시

위험 뽀족한 파편으로 장 손상

증상 예시 구토, 혈변, 복통

짜고 기름진 사람 음식

위험 췌장염·소화 장애

증상 예시 구토, 설사, 복통

아보카도 씨·과일 씨앗

위험 질식·장폐색 위험

증상 예시 구토, 변을 못 봄

! 먹었다면?

양과 시간을 확인하고, 임의로 토하게 하지 말고 먹은 것의 포장지·사진을 챙겨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

3-7 소량 급여 가능한 간식 (예시)

삶은 닭가슴살(양념 없이), 익힌 고구마·단호박, 당근·오이·브로콜리, 사과(씨 제거)·블루베리·수박(씨 제거) 등.

처음 줄 때는 소량으로 반응을 보고, 알레르기·지병이 있으면 수의사와 상담해요.

3-8 체중·비만 관리

1~3 (마름)

갈비뼈·척추·골반이 눈에 잘 보여요

4~5 (이상적)

갈비뼈가 손으로 쉽게 만져지고 위에서 볼 때 허리 라인이 보여요

6~7 (과체중)

갈비뼈를 만지려면 힘을 줘야 하고 허리 라인이 흐릿해요

8~9 (비만)

갈비뼈가 안 만져지고 복부가 늘어졌어요

- 집에서 월 1회 체중을 재요(소형견은 안고 잔 뒤 보호자 체중을 빼는 방법도 있어요)
- 비만은 관절염·당뇨·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여요
-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줄면 병원에 가요

3-9 사료·간식 보관법

-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요(직사광선·습기 피하기)
- 개봉한 사료는 한두 달 안에 먹일 수 있는 소포장이 좋아요
- 포장지의 제조일·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냄새가 이상하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버려요
- 새 사료를 기존 사료 위에 계속 덧붙여 쌓아두지 않아요

3-10 영양제·보조식품

- 균형 잡힌 완전 사료를 먹고 있다면 대부분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 관절·피부·장·눈 영양제는 필요한지, 어떤 제품인지 먼저 수의사와 상담해요
- 사람용 영양제·약은 주지 마세요(성분·용량이 달라 위험할 수 있어요)
-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말고 하나씩 소량부터, 설사·가려움이 생기면 중단해요
- 대형견 퍼피에게 칼슘 등을 임의로 더 먹이면 오히려 뼈 성장에 해로울 수 있어요

! 사료·간식 주의

익힌 뼈·딱딱한 뼈 간식은 치아 파절과 장 손상 위험이 있어요. 새 간식·영양제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구토·설사·가려움이 생기면 중단하고 병원에 문의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는 맛보다 냄새로 음식을 고르는 편이에요. 갑자기 사료를 안 먹는다면 향이나 보관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알고 계셨나요?

사료를 바꿀 땐 7~10일에 걸쳐 새 사료 비율을 조금씩 늘리면 배탈을 줄일 수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식사는 15~20분 안에 치우는 습관이 좋아요. 계속 놓아두면 식사 시간 개념이 흐려져요.

✓ 체크리스트 · 먹이기·영양

- ☐ 연령·크기에 맞는 사료 선택
- ☐ 급여량·횟수 정하기
- ☐ 간식은 하루 섭취량의 10% 이내
- ☐ 사료 교체는 7~10일에 걸쳐
- ☐ 금지 음식 보관 위치 정리
- ☐ 월 1회 체중·체형(BCS) 확인
- ☐ 물그릇 하루 1회 이상 교체



멍케어 앱 연결

AI 기반 건강 기록 & 분석

체중과 식사량을 꾸준히 기록하면 변화 추이(트렌드)를 분석해 비만·식욕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04

PART 4



건강 관리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접종·구충·검진 일정과 이상 신호를
알아두면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 4-1 동물병원 고르기
- 4-2 예방접종 (예시 스케줄)
- 4-3 기생충 예방
- 4-4 정기검진
- 4-5 중성화 수술
- 4-6 흔한 질환과 초기 신호
- 4-7 평소 건강 상태 기준 (참고치)
- 4-8 집에서 해보는 간단 건강 체크
- +11 외 11개 주제

i 꼭 읽어주세요

이 파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종 일정·약물·수술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에 가세요.

4-1 동물병원 고르기

- 집에서 가깝고 이동 부담이 적은 곳(응급 시 중요)
- 진료 내용·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 보호자 질문에 친절한지
- 검사·수술 장비, 야간·응급 대응 여부(24시 병원 연락처는 따로 저장)
- 진료 기록(차트)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 첫 방문 전 접종·구충 기록, 먹는 사료, 평소 증상 사진을 준비해요

4-2 예방접종 (예시 스케줄)

6~8주

일반적인 예시 종합백신 1차

비고 병원마다 백신 종류·간격이 달라요

8~10주

일반적인 예시 종합백신 2차 + 코로나 장염 1차

10~12주

일반적인 예시 종합백신 3차 + 코로나 장염 2차

12~14주

일반적인 예시 종합백신 4차 + 켄넬코프 1차

14~16주

일반적인 예시 종합백신 5차 + 켄넬코프 2차

3개월 이후

일반적인 예시 광견병 1회

비고 추가 접종 주기·의무는 최신 규정 확인

성견

일반적인 예시 연 1회 추가 접종 또는 항체가 검사

비고 수의사와 상담

접종 후 하루 정도는 다소 무기력할 수 있어요. 얼굴 붓기·구토·호흡 곤란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접종 당일 목욕·격한 운동은 피해요.

예방접종 수첩(진료 기록)은 사진으로도 보관해 두세요. 병원·호텔·유치원 이용 때 접종 증빙이 필요해요.

4-3 기생충 예방

심장사상충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 질환이에요. 월 1회 예방약을 꾸준히(연중 투여 권장 병원이 많아요)

내부 기생충

회충·구충 등. 강아지 때 정기 구충이 필요하고, 성견도 주기적으로 해요

외부 기생충

진드기·벼룩. 산책이 잦은 시기엔 특히 철저히, 제품은 수의사와 상담해요

주의

고양이용·사람용 약은 사용하지 마세요. 체중에 맞는 제품만 써요

4-4 정기검진

퍼피

접종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1~7세

연 1회 이상 기본 건강검진(혈액·소변 등은 수의사 판단)

7세 이상

6개월마다 검진, 치아·관절·심장·신장 상태 확인

4-5 중성화 수술

수컷

장점(일반적) 고환·전립선 질환 예방, 마킹·배회 감소 가능

고려할 점 마취 위험, 비만 경향 증가 가능

암컷

장점(일반적) 자궁축농증 예방, 유선종양 위험 감소 가능(시기 영향)

고려할 점 마취·수술 합병증 위험, 체중 관리 필요

시기·필요성은 견종, 크기,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요. 수술 전 검사, 금식, 수술 후 칼라 착용(보통 열흘 내외) 과 상처 관리를 수의사에게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4-6 혼한 질환과 초기 신호

슬개골 탈구(소형견)

한 다리를 들고 깡충 걷기, 점프 꺼림

피부 질환·알레르기

가려움, 붉은 발진, 탈모, 발을 계속 핥음

외이염

귀를 긁고 머리를 흔들, 냄새·분비물

눈 질환

충혈, 눈곱 많음, 눈을 비빔, 눈이 뿌옇게 보임

치주 질환

입 냄새, 잇몸 붓기·출혈, 밥을 씹기 힘들어함

장염·췌장염

구토, 설사, 복통(웅크림), 식욕 저하

켄넬코프(호흡기)

마른기침, 켉켉거림

심장·기관 질환

기침, 쉽게 숨참, 산책 중 주저앉음(소형·노령견 주의)

관절염

일어날 때 뻣뻣함, 계단 꺼림, 활동량 감소

4-7 평소 건강 상태 기준 (참고치)

체온

약 38~39°C (40°C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정 시 호흡

분당 약 15~30회 (수면 시 30회 이하 권장)

안정 시 심박

소형 약 100~140회, 대형 약 60~100회/분

잇몸 색

촉촉한 분홍색 (창백·푸름·노랑이면 즉시 병원)

소변·배변

소변은 맑은 노란색, 변은 단단한 갈색

💡 집에서 관찰하는 습관

잇몸 색, 식욕, 물 마시는 양, 활력, 소변·변 상태를 매일 가볍게 확인해요. 평소를 알아야 이상을 알아챌 수 있어요.

4-8 집에서 해보는 간단 건강 체크

잇몸 색

입술을 살짝 들어 잇몸을 봐요. 분홍색이 정상이에요. 창백·푸름·노랑이면 바로 병원

모세혈관 재충혈

잇몸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면 약 2초 안에 분홍색으로 돌아와야 해요

탈수 확인

목 뒤 피부를 살짝 들었다 놓았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탈수일 수 있어요

체온

평소에 재 보는 습관을 들이고, 방법은 병원에서 한 번 배워 두세요

4-9 이상 증상 판단표

즉시 병원

증상 호흡 곤란, 경련·발작, 의식 저하, 잇몸 창백·푸름, 중독 의심, 교통사고·추락, 복부 팽만+헛구역질, 지속 출혈, 소변을 못 봄

행동 지체 없이 가까운 동물병원/ 응급병원 연락 후 이동

당일 진료

증상 반복 구토·설사, 혈변·혈뇨, 24시간 이상 식욕 없음, 절뚝거림, 눈 충혈, 심한 가려움

행동 당일 병원 예약·방문

경과 관찰

증상 가벼운 일시적 설사, 약간의 기운 저하

행동 증상·횟수 기록, 악화되면 병원

4-10 응급 상황 대처 (병원 가기 전)

아래는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임시 조치예요. 모든 응급 상황은 처치 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이물질 삼킴·질식

할 일 입 안을 살펴 보이면 조심히 제거, 호흡이 힘들면 즉시 병원

하지 말 것 손가락을 깊이 넣거나 억지로 토하게 하기

중독 의심

할 일 먹은 것·양·시간 확인, 포장지 지참 후 즉시 병원

하지 말 것 임의로 구토 유도, 우유·소금물 먹이기

열사병

할 일 그늘·시원한 곳으로 이동,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시고 바람 쐬기, 즉시 병원

하지 말 것 얼음물로 급격히 식히기

출혈

할 일 깨끗한 거즈로 압박해 지혈하고 병원

하지 말 것 끈으로 세게 묶기

골절·탈구 의심

할 일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평평한 판에 실어 이동

하지 말 것 억지로 맞추거나 만지기

경련·발작

할 일 주변 위험물 치우고 조용히, 시작 시각 기록, 영상 촬영 후 병원

하지 말 것 입에 손·물건 넣기, 꺾 붙잡기

화상·외상

할 일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식히고 병원

하지 말 것 연고·민간요법 바르기

벌레·뱀 물림

할 일 움직임을 줄이고 물린 부위 사진, 즉시 병원

하지 말 것 입으로 독 빨기

교통사고·추락

할 일 곁이 멀쩡해도 내부 손상 가능, 즉시 병원

하지 말 것 일으켜 걷게 하기

4-11 응급 시 행동 순서

1

침착하게 상태 확인(호흡·의식·출혈)

2

병원에 먼저 전화(증상·먹은 것·시간 설명)

3

안전하게 이동(이동장·수건 사용)

4

챙길 것: 먹은 것 포장지, 복용약, 진료 기록, 증상 영상

4-12 집에 둘 구급상자

- 멸균 거즈·붕대·의료용 테이프, 일회용 장갑
- 생리식염수(상처·눈 세척), 소독제(수의사 추천 제품)
- 체온계, 핀셋, 가위, 엘리자베스 칼라
- 평소 먹는 약·병원·24시 응급병원 연락처 메모

4-13 건강 기록 습관

체중, 식사량, 배변 횟수와 상태, 구토·기침 같은 이상 증상(영상·사진 포함), 점종·구충 알짜를 꾸준히 기록하면 진료 때 큰 도움이 돼요.

4-14 변·소변으로 보는 건강

단단한 갈색 변

의미(참고) 정상

행동 유지

묽은 변·물설사

의미(참고) 식이 변화·스트레스·장염 가능

행동 반복·혈변·무기력 시 병원

검은 타르 같은 변

의미(참고) 위·소장 출혈 가능

행동 즉시 병원

붉은 피 섞인 변

의미(참고) 대장 문제·장염 가능

행동 당일 병원

흰·회색·기름진 변

의미(참고) 소화 불량·췌장 등 문제 가능

행동 병원 상담

변에 벌레·쌀알 같은 것

의미(참고) 기생충 가능

행동 사진 촬영 후 병원

소변 색이 진함·혈뇨

의미(참고) 탈수·방광염·결석 가능

행동 당일 병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못 봄

의미(참고) 요로 문제 가능(특히 수컷은 응급)

행동 즉시 병원

! 사람 약·임의 투약 금지

사람 약(진통제 등)이나 남은 약을 임의로 먹이면 중독될 수 있어요.
처방 없이 투약하지 말고, 반드시 수의사 지시에 따라 체중에 맞는 용량으로 주세요.

4-15 약·연고 투약 요령

- **알약**: 수의사가 허용한 간식에 싸거나, 입 안쪽 깊숙이 넣고 코를 살짝 들어 삼키게 해요
- **물약**: 볼 안쪽으로 천천히 짜 넣어 사례를 막아요
- **눈·귀 약**: 약병 입구가 닿지 않게 하고 정해진 횟수만 사용해요
- 증상이 좋아져도 처방 기간은 끝까지, 놓친 약을 몰아서 주지 않아요
- 삼키지 않거나 토하면 임의로 다시 주지 말고 병원에 문의해요

4-16 진료 잘 받는 법

방문 전

언제부터·어떤 증상·횟수·먹은 것·먹던 약을 메모하고 증상 영상을 준비해요

진료 중

원인·검사 이유·비용·치료 기간을 적어 가서 물어봐요

진료 후

처방·주의사항·재진 일정을 기록해요

수술 후

엘리자베스 칼라 착용, 상처 헹기 방지, 격한 활동 제한, 재진 일정 준수

4-17 구토·설사, 집에서는 어떻게?

먼저 언제부터, 몇 번, 어떤 색인지, 먹은 것, 기운이 어떤지를 기록해 두면 진료에 큰 도움이 돼요.

건강한 성견이 한두 번 토하고 기운이 좋음

집에서 할 일 간식·식사를 잠시 쉬고 물은 소량씩 자주 주며 상태를 지켜봐요. 괜찮으면 평소 식사를 소량부터 다시 줘요

병원에 가야 할 때 다시 토하거나 처지거나 물도 토할 때

똥은 변이 1~2회, 활력 정상

집에서 할 일 자극적인 간식은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줘요. 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요

병원에 가야 할 때 24시간 넘게 지속, 하루 여러 번, 점점 심해질 때

퍼피·초소형견·노령견·지병이 있는 아이

집에서 할 일 임의로 오래 굶기지 말고 바로 병원에 상담해요

병원에 가야 할 때 구토·설사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상담 권장

혈토·혈변, 검은 변, 복부 팽만, 심한 복통

병원에 가야 할 때 즉시 병원

이물질·독성 음식 섭취 의심

집에서 할 일 먹은 것·양·시간을 확인하고 포장지를 챙겨요

병원에 가야 할 때 즉시 병원

! 임의 투약·우유 금지

사람 지사제·소화제, 우유, 기름진 음식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탈수(잇몸이 끈적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짐) 신호가 있으면 서둘러 병원에 가세요.

4-18 소형 퍼피 저혈당 주의

초소형견·생후 어린 퍼피는 먹는 양이 부족하거나 춥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위험한 때

입양 직후 이동·환경 변화, 식사를 거른 날, 추위, 과한 놀이 뒤

이런 신호

갑자기 축 처짐, 비틀거림, 떨림, 잇몸 창백, 반응 둔함, 심하면 경련·의식 저하

응급 조치

의식이 있다면 꿀이나 포도당 시럽을 아주 소량 잇몸에 발라 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즉시 병원으로 가요

예방

소량씩 자주 급여, 따뜻한 환경, 입양 초기 무리한 놀이·외출 줄이기

! 의식이 없거나 경련 중이라면

입에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넣지 마세요. 잇몸에 소량만 바르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세요.

4-19 발정기와 성 관련 관리

첫 발정

대체로 생후 6~12개월 전후(소형견이 빠르고 대형견은 더 늦을 수 있어요)

주기·기간

보통 연 1~2회, 출혈·외음부 부음 등 변화가 약 2~3주 이어져요

암컷 증상

외음부 부음·출혈, 자주 핏몸, 예민·불안, 식욕 변화

관리

위생 팬티·기저귀 사용, 방석·바닥 자주 세탁, 산책은 사람·개가 적은 시간에 짧게

주의

발정기에는 임신이 가능해요. 수컷과의 접촉을 철저히 막아요

가성임신

발정 후 1~2개월 뒤 젖이 붓고 인형을 돌보는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병원 상담

수컷

마킹, 마운팅, 암컷 발정 냄새에 흥분·탈출 시도. 문단속·훈련을 철저히 하고 중성화는 수의사와 상담해요

발정이 끝난 뒤 이상 신호

발정 후 한두 달 사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고, 구토, 식욕 저하, 질 분비물이 보이면 자궁 질환일 수 있어 응급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병원에 가세요.



알고 계셨나요?

코가 축축하냐 말랐냐만으로는 건강을 알 수 없어요. 코보다 식욕·활력·배변·잇몸 색을 먼저 살펴보세요.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 가기 전 증상 영상을 짧게 찍어 두면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기침, 절뚝거림, 발작처럼 병원에서는 보여주기 어려운 증상일수록 더 그래요.



체크리스트 · 건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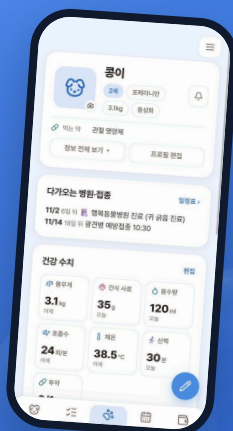
- ☐ 접종·구충 일정표 작성
- ☐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
- ☐ 정기검진 예약(성견 연 1회, 노령견 6개월)
- ☐ 매일 잇몸·식욕·배변 확인
- ☐ 구급상자 준비
- ☐ 24시 응급병원 연락처·경로 확인
- ☐ 응급 때 챙길 것(포장지·진료기록) 정리



멍케어 앱 연결

AI 기반 건강 기록 & 분석

체중·식사·이상 증상을 정밀하게 기록해 두면 진료 때 설명하기 쉬워요. 앱의 분석은 참고용이며 진료를 대신 할 수 없어요.



05

PART 5



위생 미용

매일 조금씩 하는 관리가 병원비를 줄여줘요. 특히 양치는 습관이 되면 평생 건강이 달라져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5-1 양치

5-2 목욕·털 관리

5-3 발톱·발바닥·귀·눈·항문낭

5-4 털 종류별 관리

5-5 미용실 이용·목욕 때 건강 체크

5-6 피부·털·눈 이상 신호

5-1 양치

- 강아지 전용 칫솔·치약만 사용해요(사람 치약 금지)
- 처음엔 손가락에 치약을 묻혀 맛에 익숙해지게 해요 → 거즈 → 칫솔 순으로
- 어금니 바깥쪽부터 짧게, 칭찬과 보상으로 끝내요
- 가능하면 매일, 어렵다면 주 3회 이상을 목표로 해요
- 치석이 쌓이면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개 마취가 필요해 건강 상태 확인 후 진행하므로 수의사와 상담해요

5-2 목욕·털 관리

목욕 주기

보통 2~4주에 한 번(피부·털 상태에 따라). 너무 잦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방법

미지근한 물과 강아지 전용 샴푸,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거품은 깨끗이 헹궈요

말리기

수건으로 닦고 드라이기로 속까지 완전히 말려요. 습하면 피부병 원인이 돼요

빗질

장모·곱슬털은 매일, 단모는 주 2~3회. 엉킴은 억지로 빼지 말고 풀어줘요

미용

푸들·비숑 등은 4~8주 간격 미용. 이중모는 여름에 삭발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5-3 발톱·발바닥·귀·눈·항문낭

발톱

1~2개월에 한 번. 혈관(퀴)을 자르지 않게 조금씩, 출혈 시 지혈제·거즈로 압박해요

발바닥

패드 사이 털이 길면 정리하고, 산책 후 발을 닦아 건조해요

귀

귀 세정제를 넣고 마사지 후 닦아내요. 면봉을 깊이 넣지 마세요. 냄새·붉음은 병원

눈

눈곱은 따뜻한 거즈로 닦아요. 눈물 자국이 심하면 병원 상담

항문낭

소형견은 주기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 병원·미용실에서 상담

귀·피부 체크

목욕 때마다 피부 발진, 혹, 진드기를 살펴요

5-4 털 종류별 관리

단모종

대표 견종 예시 비글·불독·치와와(단모)

관리 주 2~3회 빗질, 털갈이철 집중 관리

장모종

대표 견종 예시 말티즈·요크셔테리어·시추

관리 매일 빗질, 엉킴 방지, 정기 미용

곱슬·푸들류

대표 견종 예시 푸들·비송·말티푸

관리 털이 덜 빠지는 대신 엉킴 주의, 4~8주 미용

이중모

대표 견종 예시 시바·리트리버·포메라니안

관리 환절기 털갈이 집중 빗질, 여름 삭발 지양

주름 많은 견종

대표 견종 예시 불독·퍼그

관리 주름 사이 습기·염증을 닦고 말리기

5-5 미용실 이용·목욕 때 건강 체크

- 처음엔 부분 미용 같은 짧은 코스로 적응시키고, 원하는 스타일과 건강 상태를 미리 알려줘요
- 목욕 때 피부(발진·혹), 입·잇몸, 눈·귀, 발바닥 상태를 함께 살펴요

- 귀가 후 피부 붉음·상처·행동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요

5-6 피부·털·눈 이상 신호

급거나 활는 행동이 잦음, 붉은 발진

의심되는 것 피부염·알레르기·기생충

행동 병원 상담

털이 뭉텅이로 빠지거나 비듬이 많음

의심되는 것 피부 질환·영양 문제

행동 사진 기록 후 병원

지속적인 눈물 자국·눈곱

의심되는 것 눈 질환·눈물관 문제

행동 부드럽게 닦고, 심하면 병원

몸에서 심한 냄새

의심되는 것 피부·귀·치아 문제

행동 원인 부위 확인 후 병원

! 사람용 제품 금지

사람 샴푸·치약(불소·자일리톨 성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드라이기는 뜨겁지 않게 거리를 두고, 귀·눈에 물이나 거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요.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 발바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심한 냄새나 붉음, 계속 핏는 행동이 있으면 병원에서 확인해요.



알고 계셨나요?

양치가 힘들다면 하루 10초로 시작해요. 성공하면 칭찬과 보상으로 끝내는 게 포인트예요.



알고 계셨나요?

발톱 깎기는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발 하나, 내일은 또 하나씩 나눠서 해도 좋아요.



알고 계셨나요?

목욕 전 빗질로 엉킨 털을 먼저 풀어 주면 물에 젖은 뒤 더 심하게 엉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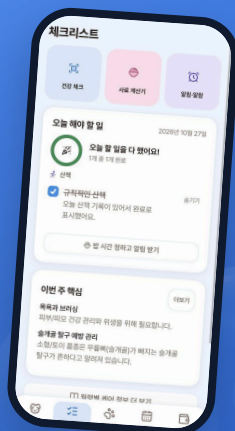
체크리스트 · 위생·미용

- ☐ 매일(또는 주 3회 이상) 양치
- ☐ 2~4주마다 목욕, 완전히 말리기
- ☐ 빗질 주기 정하기(장모 매일)
- ☐ 1~2개월마다 발톱 정리
- ☐ 귀·눈·발바닥 상태 확인
- ☐ 피부 발진·혹·진드기 점검

멍케어 앱 연결

시기별 전담 일정 및 팁

성장 시기별 핵심 일정과 유용한 양육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아 양치·목욕·미용 관리 습관을 만들어 가요.



06

PART 6



훈련 행동 교육

강아지는 혼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려줘서 배워요. 보상 중심의 긍정 강화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6-1 훈련 5원칙

6-2 배변 훈련

6-3 기본 훈련 순서

6-4 크레이트(하우스)·이동장 훈련

6-5 자주 겪는 문제 행동

6-6 강아지 신호 읽기

+5 외 5개 주제

6-1 훈련 5원칙

긍정 강화

잘했을 때 바로 칭찬·간식으로 보상해요. 처벌은 불안과 공격성을 키울 수 있어요

타이밍

행동 직후 1~2초 안에 보상해야 연결해서 이해해요

일관성

가족 모두 같은 신호·규칙을 써요

짧게 자주

한 번에 5분 이내, 하루 여러 번. 즐겁게 끝내요

단계적으로

쉬운 곳(집)→방해 요소 있는 곳(밖) 순으로 난이도를 올려요

6-2 배변 훈련

- 식사·물·낮잠·놀이 직후 배변 장소로 데려가요(보통 15분 안에 신호)
- 쿵쿵거리거나 빙글빙글 돌면 바로 이동
- 성공하면 즉시 칭찬과 간식
- 실수했다면 혼내지 말고 냄새를 완전히 제거(효소 세정제)
- 패드→실외 전환은 서서히, 어린 강아지는 횟수가 많아요

6-3 기본 훈련 순서

1

훈련 이름 부르기

요령 이름 → 눈 마주침 → 보상

2

훈련 앉아

요령 간식을 코 위로 천천히 올려 엉덩이가 내려가면 보상

3

훈련 엎드려

요령 앉은 상태에서 간식을 바닥으로 내려 유도

4

훈련 기다려

요령 1초부터 시작해 천천히 시간·거리 늘리기

5

훈련 이리 와

요령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고 오면 항상 좋은 일

6

훈련 놓아·안돼

요령 물건을 놓으면 더 좋은 간식과 교환

6-4 크레이트(하우스)·이동장 훈련

케이지를 안전하고 편안한 개인 방으로 인식시켜요. 간식·식사를 안에서 주고 문을 닫는 시간을 천천히 늘려요. 이동장도 평소에 열어 두고 간식을 줘서 익숙하게 해요. 벌로 쓰거나 오래 가두지 마세요.

6-5 자주 겪는 문제 행동

입질·물기

원인 이갈이, 놀이 학습

대처 물면 놀이를 멈추고 장난감으로 대체, 흥분 낮추기

짖음

원인 경계·요구·외로움·지루함

대처 원인 파악 → 요구 짖음은 무시 후 조용할 때 보상

분리불안

원인 혼자 있음에 대한 불안

대처 외출을 짧게부터 연습, 나갈 때·들어올 때 과한 인사 줄이기

리드줄 당김

원인 흥분, 학습 안 됨

대처 당기면 멈추고, 느슨할 때 걸어가며 보상

마운팅

원인 흥분, 놀이, 스트레스

대처 방향 전환·휴식, 지속·공격적이면 상담

식분증

원인 호기심, 습관

대처 배변 즉시 치우기, 지속되면 병원·행동 전문가 상담

공격성·으르렁

원인 공포, 자원 보호, 통증

대처 혼내지 말고 거리 두기, 전문가(수의사·행동 전문가) 상담

6-6 강아지 신호 읽기

꼬리를 높이 빠르게 흔들

흥분·기쁨(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꼬리를 말아 내림

불안·공포

하품·입 핥기·몸 털기

스트레스·긴장 신호

귀를 뒤로 눕힘, 몸 낮춤

두려움 또는 복종

고개 돌림·시선 피함

"그만" 또는 진정 신호

배를 보임

편안함 또는 복종(원하지 않으면 만지지 말기)

6-7 훈련 8주 로드맵 예시

1~2주

이름 부르기, 쉬터 적응, 배변 장소 익히기

3~4주

앉아·기다려 기초, 손길(발·귀·입) 적응

5~6주

앞드려·이리 와, 짧은 리드줄 산책 연습

7~8주

방해 요소가 있는 곳에서 복습, 혼자 있는 연습 늘리기

아이마다 속도는 달라요. 잘 안 되면 쉬운 단계로 돌아가 반복해요.

6-8 배변 실수가 계속될 때

갑자기 실수가 늘어요

원인 방광염·장염·노령 등

대처 먼저 병원 상담

현장을 못 봤어요

대처 혼내지 않고 효소 세정제로 냄새 제거

반가워서 지려요

원인 흥분

대처 인사를 차분하게

다리 들고 조금씩 싸요(마킹)

원인 영역 표시·불안

대처 냄새 제거, 원인 파악, 필요하면 행동 상담

화장실이 멀어요

원인 소형·노령견은 이동이 부담

대처 배변 장소를 가까이 두기

6-9 이웃과 함께 사는 에티켓

- 짖음이 잦으면 원인(지루함·경계·분리불안)을 찾아 해결해요
-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안거나 짧게 잡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둡요
- 배변·소변 자국은 즉시 정리해요
- 층간 소음은 매트를 깔고 활동 시간을 조절해요

6-10 훈련이 잘 안 될 때

보상이 약해요

더 맛있는 간식으로 바꿔요

집중이 안 돼요

시간·거리·방해 요소의 난이도를 낮춰요

컨디션 확인

아프거나 피곤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도 살펴요

도움 받기

훈련 교실·행동 전문가·수의사와 상담해요

6-11 천둥·불꽃놀이·큰 소리 무서워할 때

이런 신호

떨림, 숨음, 헐떡임, 침 흘림, 도망치려 함

집에서

안전한 쉼터(담요를 덮은 케이지 등), TV·음악으로 소리를 덮고, 간식·노즈워크로 주의를 돌려요

보호자 태도

과하게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히 곁에 있어 주세요

미리 연습

아주 작은 볼륨으로 소리를 들려주며 간식과 짝지어 천천히 익숙해지게 해요

산책

불꽃놀이·공사 시간대는 피하고, 놀라 도망칠 때를 대비해 하네스·인식표·등록 정보를 점검해요

심하면

임의로 진정제를 먹이지 말고 수의사와 상담해요

! 체벌·소리치기 금지

때리거나 크게 혼내면 불안과 공격성이 커지고 보호자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문제 행동이 심하거나 공격성이 있으면 수의사·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는 단어보다 목소리 톤과 몸짓을 먼저 읽어요. 같은 신호와 말투를 일관되게 써 주세요.



알고 계셨나요?

훈련 간식은 아주 작게 잘라 주세요. 쌀알 반 정도 크기면 충분하고, 하루 간식량에 포함해요.



알고 계셨나요?

같은 훈련도 '배고플 때, 식사 전'이 집중이 잘 돼요. 다만 너무 오래 굶기지는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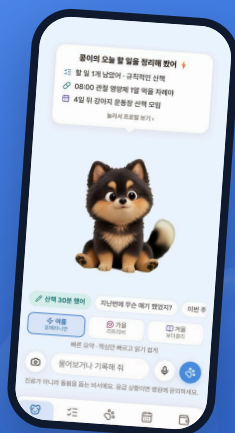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 · 훈련·행동

- ☐ 보상 간식 준비
- ☐ 하루 5분씩 짧게 자주 훈련
- ☐ 이름·앉아·기다려 연습
- ☐ 배변 장소 정해 두기
- ☐ 크레이트(하우스) 적응
- ☐ 혼자 있는 연습(짧게부터)
- ☐ 가족 모두 같은 규칙 사용

멍케어 앱 연결

멀티모달 AI 비서 피드백

행동이나 훈련이 궁금할 때 글·사진·음성으로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심한 문제 행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7

PART 7



산책 놀이 운동

산책은 운동이자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시기와 날씨에 맞춰
안전하게 즐겨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 7-1 산책 시작과 준비
- 7-2 산책 중 주의
- 7-3 계절별 관리
- 7-4 놀이와 두뇌 운동
- 7-5 산책 중 만나는 상황
- 7-6 장난감 안전하게 고르기

7-1 산책 시작과 준비

시작 시기

기초 접종이 끝난 뒤 수의사 안내에 따라 시작해요(보통 접종 완료 후 1~2주)

준비물

하네스, 2m 이내 리드줄, 인식표(등록 정보), 배변봉투, 물, 간식

횟수·시간

소형견 하루 2회 20~30분이 일반적이에요. 활동량 많은 견종·대형견은 더 길게. 개체·나이·건강에 따라 달라요

산책 전

배변 먼저, 식후 바로 격한 운동은 피해요

산책 후

발·배를 닦고 진드기·상처를 확인해요

7-2 산책 중 주의

- 땅에 떨어진 음식·쓰레기는 먹지 않게 해요(훈련: "놓아")
- 다른 개와 인사는 보호자끼리 먼저 확인하고, 줄을 팽팽히 당기지 않아요
- 목줄은 항상 착용, 맹견은 입마개도 필수예요
- 배변은 반드시 수거해요
- 무리하게 끌지 말고 아이의 속도·휴식에 맞춰요

- 쓰러지듯 주저앉거나 과하게 헐떡이면 즉시 쉬어요

7-3 계절별 관리

봄

주의점 진드기·꽃가루, 털갈이

대처 외부기생충 예방, 산책 후 확인, 빗질

여름

주의점 열사병, 아스팔트 화상

대처 한낮 산책 피하기. 바닥에 손등을 5초 대어 뜨거우면 산책 금지.
물·그늘, 차 안 방치 절대 금지

장마

주의점 습기·피부병, 곰팡이

대처 완전히 말리기, 습도 관리, 발 사이 확인

가을

주의점 털갈이, 야외 활동 증가

대처 진드기, 알레르기 관찰, 활동 늘릴 때 점진적으로

겨울

주의점 저체온, 관절, 염화칼슘

대처 소형·단모종 옷, 짧게 자주, 산책 후 발 씻기·보습

미세먼지

주의점 호흡기 자극

대처 나뭇잎은 실내 놀이로 대체, 귀가 후 닦기

! 더위에 특히 약한 아이들

단두종(퍼그·불독 등), 비만·노령견, 털이 짙은 견종은 열사병 위험이 높아요. 더운 날은 산책 시간을 새벽·밤으로 옮기고 무리하지 마세요.

7-4 놀이와 두뇌 운동

- **노즈워크**: 간식을 숨겨 냄새로 찾기. 피로·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 **터그·공놀이**: 규칙("놓아")을 정해 흥분을 조절해요
- **퍼즐 장난감·간식 볼**: 혼자 있는 시간에 도움
- **짧은 훈련 놀이**: 앉아·엎드려로 놀이처럼 두뇌 사용
- 관절이 약한 아이는 점프·미끄러운 바닥 놀이를 줄여요

7-5 산책 중 만나는 상황

다른 개를 만났을 때

보호자끼리 먼저 확인하고, 줄을 당기지 않고 거리를 두며 지나가요

아이들이 다가올 때

반드시 보호자 허락을 구하게 하고, 아이가 무서워하면 거리를 뒹요

자전거·킥보드

소리에 놀랄 수 있어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간식으로 주의를 돌려요

줄을 놓쳤을 때

쫓아가지 말고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며 반대 방향으로 가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7-6 장난감 안전하게 고르기

고무 추·콩

좋은 점 씹기 욕구·이갈이 해소

주의 입에 맞는 크기, 갈라지면 교체

노즈워크·퍼즐

좋은 점 두뇌 자극

주의 간식량은 식사에서 빼 주세요

봉제 인형

좋은 점 애착

주의 눈·코·충전재 삼킴 주의

로프·줄

좋은 점 터그 놀이

주의 풀린 실을 삼키면 장폐색 위험

공

좋은 점 가져오기

주의 입에 통째로 들어갈 크기는 질식 위험

딱딱한 뼈·뽕

주의 치아 파절 위험으로 비권장



알고 계셨나요?

산책 중 쿵쿵거리는 시간은 강아지에게 신문을 읽는 시간이에요.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냄새 맡을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알고 계셨나요?

산책 코스를 가끔 바꿔 주면 새로운 냄새 덕분에 짧은 산책도 만족도가 높아져요.



알고 계셨나요?

비 오는 날엔 집에서 노즈워크나 짧은 훈련 놀이로 에너지를 풀어 주세요.



알고 계셨나요?

산책 후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토할 수 있어요. 나눠서 조금씩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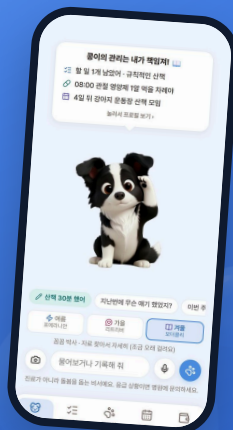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 · 산책·놀이·운동

- ☐ 접종 완료 후 산책 시작(수의사 확인)
- ☐ 하네스·리드줄·인식표·배변봉투 챙기기
- ☐ 날씨·바닥 온도(손등 5초) 확인
- ☐ 산책 후 발·몸·진드기 점검
- ☐ 노즈워크 등 두뇌 놀이 하기
- ☐ 계절별 주의점 확인

멍케어 앱 연결

유동적 시기별 맞춤 도움말

강아지의 현재 성장 상태에 맞는 도움말을 실시간으로 받아, 나이와 계절에 맞는 산책·놀이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08

PART 8



생활 환경 외출 여행

혼자 있는 시간부터 이사·여행까지, 생활 속 상황별 팁을 모았어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 8-1 혼자 있는 시간
- 8-2 이사·환경 변화
- 8-3 차량·대중교통
- 8-4 돌봄 서비스 고르기
- 8-5 반려견과 여행
- 8-6 동반 외출 매너·이사

8-1 혼자 있는 시간

- 처음엔 몇 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요. 어린 강아지는 장시간 혼자 두면 힘들어요
- 외출 전 산책·배변·놀이로 에너지를 풀어줘요
- 노즈워크·츄 장난감 등 즐길 거리를 남겨요
- 나갈 때·들어올 때 과하게 반기지 않아요
- 불안이 심하면(파괴·짖음·배변 실수) 전문가 상담을 받아요

8-2 이사·환경 변화

이사 전후 아이에게 익숙한 방석·장난감·담요를 그대로 사용하고, 새 집 안전을 먼저 점검해요. 주소 변경 시 동물등록 정보 변경 신고도 잊지 마세요.

8-3 차량·대중교통

자동차

카시트·안전벨트 하네스·이동장으로 고정해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게 해요

멀미

출발 전 공복 상태 권장, 짧은 거리부터 적응. 심하면 병원 상담

차 안 방치

여름·겨울 모두 금지. 몇 분 만에도 생명이 위험해요

대중교통

이동가방 사용이 일반적이에요. 이용 규정은 교통수단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해요

8-4 돌봄 서비스 고르기

펫시터

후기·경력·보험, 사전 미팅, 돌봄 기록(사진·영상) 공유 여부

펫호텔·유치원

시설 청결, 인원 대비 아이 수, CCTV·응급 대응, 접종 요구 조건, 짧은 체험 후 이용

지인 부탁

급식량·약·병원·주의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

8-5 반려견과 여행

- 숙소·식당·관광지 반려견 동반 가능 여부와 조건(크기·접종·이동가방)을 미리 확인해요
- 이동 중 2~3시간마다 쉬어가며 물·배변 시간을 줘요
- 평소 사료·간식·물그릇·담요·상비약·진료기록을 챙겨요
- 해외 이동은 국가별 검역 요건(마이크로칩, 광견병 항체 검사, 서류기간 등)이 달라 출발 전 충분히(수개월 전부터) 확인해요
- 항공 이동은 항공사 규정(이동장 크기·무게·단두종 제한)을 확인하고 수의사와 상담해요

! 실종 예방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등록 정보 최신화, 하네스 점검! 낯선 곳에서는 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요.

8-6 동반 외출 매너·이사

- 목줄·하네스를 착용하고, 필요한 장소에서는 이동장을 이용해요
- 다른 사람·반려견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게 하고, 짖음·배변은 즉시 조치해요
- 이사 때는 익숙한 방석·장난감을 그대로 쓰고, 첫 며칠은 평소 일과를 유지해요
- 주소가 바뀌면 동물등록 변경 신고와 병원 기록 인계를 챙겨요

! 차 안에 혼자 두지 마세요

봄·가을에도 차 안 온도는 몇 분 만에 위험할 만큼 올라가요. 창문을 조금 열어도 안전하지 않으니 잠깐이라도 혼자 두지 마세요.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는 예측할 수 있는 일과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외출과 여행 중에도 식사·산책 시간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해 주세요.

☒ 체크리스트 · 생활·외출·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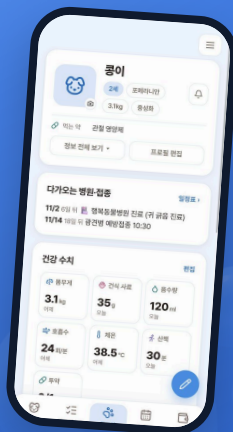
- ☐ 혼자 있는 시간 연습
- ☐ 외출 전 산책·놀이로 에너지 풀기
- ☐ 차량 안전 고정(카시트·이동장)
- ☐ 돌봄 서비스 사전 방문·후기 확인
- ☐ 여행지 반려견 동반 규정 확인
- ☐ 이동 중 챙길 것(사료·물·약·진료기록)



멍케어 앱 연결

AI 등록 프로필 기반 전담 케어

등록된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맞춤 관리로 외출·여행 준비와 일상 케어를 이어가요.



09

PART 9



비용 행정 법규

알아두면 아끼고, 모르면 과태료! 비용 계획과 꼭 지켜야 할 규정을 정리했어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 9-1 양육 비용 항목
- 9-2 평균 양육비는 얼마나?
- 9-3 동물등록
- 9-4 반려견 관련 법규 핵심
- 9-5 펫보험 비교 포인트

i 꼭 읽어주세요

법령·과태료·등록 절차·검역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어요. 이 파트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 공식 기관과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9-1 양육 비용 항목

식비

항목 사료, 간식, 영양제(필요 시)

주기 매월

위생·미용

항목 샴푸, 배변패드, 미용, 목욕

주기 매월·격월

건강

항목 접종, 구충·심장사상충 예방, 정기검진

주기 연간·월간

용품

항목 하네스, 리드줄, 방석, 장난감, 옷

주기 필요 시

돌봄

항목 펫시터, 호텔, 유치원, 교육비

주기 필요 시

비상 대비

항목 질병·사고 치료비 → 비상금 또는 펫보험

주기 상시

- 월 고정비와 연간 변동비를 나눠 월 예산을 세워요
- 병원비는 한 번에 크게 나올 수 있어 비상금을 따로 모아요

9-2 평균 양육비는 얼마나?

KB경영연구소의 2025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17.8만 원(치료비 제외) 이에요. 마리당으로는 월 약 16.1만 원이에요.

사료

비중 약 34.7%

월 금액(가구 평균 환산) 약 6만 원

간식·건강보조식품

비중 약 26.0%

월 금액(가구 평균 환산) 약 4.6만 원

일용품(배변패드·용품 등)

비중 약 9.0%

월 금액(가구 평균 환산) 약 1.6만 원

미용·패션·기타

비중 나머지 약 30%

월 금액(가구 평균 환산) 약 5.4만 원

치료비는 따로 봐야 해요. 같은 조사에서 반려견 마리당 최근 2년간 치료비는 평균 약 143만 원이었어요.

i 평균은 평균일 뿐이에요

견종·크기·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요. 위 금액은 조사 시점 기준 평균이고 항목별 금액은 비중으로 환산한 대략적인 값이에요. 월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에 비상금을 더해 두세요.

9-3 동물등록

대상·기한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해야 해요

방법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인식표) 등.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시군구청에서 신청해요

변경 신고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 분실·사망 등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해요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금액·기준은 최신 규정 확인)

장점

실종 시 보호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9-4 반려견 관련 법규 핵심

목줄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길이 2m 이내)가 필요해요

배변 수거

배변은 즉시 수거해야 해요

맹견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은 외출 시 목줄·입마개 및 책임보험·교육 등 별도 의무가 있어요

물림 사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학대·유기

학대와 유기는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새 가족을 찾는 등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소음·공동생활

짖음 관리와 공동주택 규약 준수는 이웃과의 관계에 중요해요

9-5 펫보험 비교 포인트

- 가입 가능 나이와 갱신 가능 연령
- 보장 범위(질병·상해·수술·통원)와 보장 한도
- 자기부담금, 면책·감액 기간, 기존 질환 제외 여부

- 품종·나이에 따른 보험료 변화
- 청구 절차(병원 직접 청구 가능 여부)

! 유기·학대는 범죄예요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반드시 새 가족을 찾는 등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 펫보험 팁

가입 가능 연령과 기존 질환 제외 조건이 있어 어릴 때 알아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약관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KB경영연구소 2025년 조사에서 사료와 간식·건강보조식품은 반려견 양육비의 약 60%를 차지했어요. 식비를 기록해 두면 예산 관리가 쉬워져요.



알고 계셨나요?

병원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사진으로 모아 두면 보험 청구와 병원 이동 때 유용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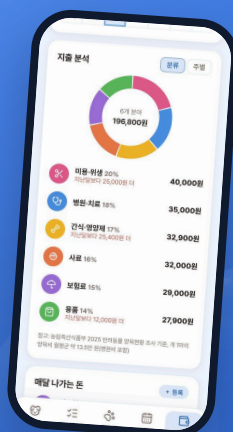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 · 비용·행정·법규

- ☐ 월 예산·비상금 정하기
- ☐ 동물등록(30일 이내)·변경 신고 확인
- ☐ 펫보험 약관 비교
- ☐ 2m 이내 목줄·배변봉투 지참
- ☐ 법령·규정은 공식 기관에서 최신 확인

멍케어 앱 연결

통합 반려 가계부 자동화

사료·병원·미용 등 모든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월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10

PART 10



특별한 순간들

가족의 변화부터 노령기, 이별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10-1 가족이 늘어날 때

10-2 노령견 돌봄

10-3 이별과 펫로스

10-4 실종 시 대처

10-5 재난·비상 대비

10-1 가족이 늘어날 때

임신·출산

대부분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아기가 오기 전부터 새로운 소리·냄새·일과에 적응시키고, 아기와 아이를 단둘이 두지 않아요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꼬리·귀 잡기, 안고 쫓기)을 알려주고 항상 어른이 지켜봐요

둘째 강아지

중립적인 장소에서 첫 만남, 밥그릇·장난감 등 자원은 각자 분리해요.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양이와 함께

울타리·분리 공간으로 천천히 냄새부터 적응시켜요

10-2 노령견 돌봄

- **검진**: 6개월마다, 혈액·소변·치아·관절·시력 확인
- **식단**: 노령견용 사료, 체중 유지, 신장·간·심장 문제는 처방식 상담
- **환경**: 미끄럼 방지 매트, 낮은 계단·경사로, 폭신하고 따뜻한 잠자리
- **관절**: 무리 없는 가벼운 산책, 체중 관리
- **인지 저하(치매)**: 밤에 서성임, 방향 감각 상실 → 병원 상담
- **통증 신호**: 숨은 곳으로 숨음, 만지면 예민, 식욕 저하

10-3 이별과 펫로스

수의사와 함께 아이의 삶의 질(식욕, 통증, 움직임, 즐거움)을 살펴보고, 치료·호스피스·안락사 같은 어려운 선택을 신중히 상담해요. 마지막 시간에는 좋아하던 것을 해주세요.

펫로스(반려동물 상실) 관촬아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예요. 충분히 애도하고, 가족·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힘들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10-4 실종 시 대처

- 집 주변부터 즉시 수색하고, 아이가 평소 다니던 곳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지자체·인근 동물병원·보호소에 실종 신고
- 전단지·SNS·지역 커뮤니티에 사진과 특징, 연락처 공유
- 등록 정보·인식표의 연락처가 최신인지 평소에 확인해요

10-5 재난·비상 대비

대피 가방

사료·물·그릇, 약, 진료 기록, 담요, 배변봉투, 리드줄, 최근 사진

인식표

연락처와 동물등록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요

이동 연습

평소 이동장에 익숙해지게 해 주세요

대피 장소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는 지자체·기관에 미리 확인해요

! 아이와 강아지를 단둘이 두지 마세요

아무리 순한 강아지라도 영유아·어린이와 단둘이 두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항상 어른이 지켜보세요.



알고 계셨나요?

나이 든 강아지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짧은 노즈워크와 가벼운 산책은 노령기에도 큰 즐거움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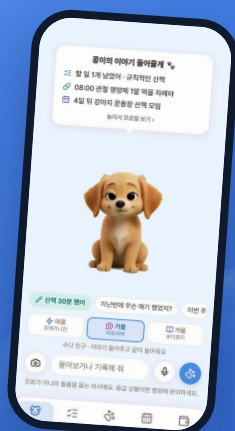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 · 특별한 순간

- ☐ 가족 구성 변화 전 적응 계획 세우기
- ☐ 노령기 환경 조정(미끄럼 방지·경사로)
- ☐ 노령견 6개월 검진
- ☐ 인식표·등록 정보 최신 확인
- ☐ 실종 대비 최근 사진 보관
- ☐ 나와 가족의 마음 돌보기

멍케어 앱 연결

멀티모달 AI 비서 피드백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은 글·사진·음성으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노령기·이별 같은 큰 결정은 수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부록

 부록



FAQ 용어 사전

궁금했던 점과 자주 나오는 용어를 모아 정리했어요.

이 파트에서 다뤄요

A 자주 묻는 질문 FAQ

B 용어 사전

A 자주 묻는 질문 FAQ

언제부터 산책해도 되나요?

기초 접종이 끝난 뒤 수의사 안내에 따라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안고 외출하며 적응시켜요

사료는 얼마나 주나요?

포장지 권장량을 기준으로 체중·활동량·체형에 맞게 조절하고, 간식은 10% 이내예요

밤에 킁킁대요

불안·배변 신호·춥거나 배고픔을 체크하고, 차분하게 안정시켜 주세요. 과한 반응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목욕은 언제부터?

접종 일정과 컨디션에 맞춰 수의사와 상의해요. 어린 강아지는 따뜻하게, 짧게 해요

혼자 두면 짫어요

분리불안일 수 있어요. 짧게부터 적응 훈련을 하고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요

사람 음식 나눠 줘도 되나요?

양념·기름·위험 음식은 금지예요. 주려면 안전한 재료를 소량만

중성화는 꼭 해야 하나요?

견종·성별·건강에 따라 달라요. 장단점을 수의사와 상담해 결정해요

요구 짓음에 간식을 줘도 되나요?

간식을 주면 짓으면 얻는다고 학습해요. 조용해진 순간 보상해요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간식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정해 보세요. 24시간 이상 안 먹거나 기운이 없으면 병원에 가요

첫 산책에 안 걸으려 해요

억지로 끌지 말고 간식으로 유도하며 짧게 시작해요. 환경 소리가 무서울 수 있어요

다른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나요?

천천히 냄새부터 적응시키고, 처음엔 공간을 분리해요

눈물 자국이 심해요

눈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 말려 주세요. 눈곱·충혈이 함께 있거나 심해지면 병원 상담이 필요해요

입 냄새가 심해요

치석·잇몸 질환이 흔한 원인이에요. 양치를 시작하고, 심하면 수의사에게 치아를 확인받아요

발정 출혈은 병인가요?

암컷의 발정기에 나타나는 정상 현상일 수 있어요. 단 양이 많거나 기간이 길면 병원에 상담해요

B 용어 사전**BCS**

체형 점수(9단계). 4~5점이 이상적

DHPPL

종합백신에 포함되는 주요 질병 예방(홍역·간염·파보·파라인플루엔자·렙토스피라 등)

슬개골 탈구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질환(소형견 흔함)

노즈워크

후각을 쓰는 놀이·훈련

사회화

다양한 사람·환경·소리를 좋은 경험으로 접하게 하는 것

분리불안

보호자와 떨어질 때 불안으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상태

켈넬코프

전염성 기관지염. 마른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질환

심장사상충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인 기생충 질환. 월 1회 예방

크레이트

강아지의 안전한 개인 공간이 되는 케이지·하우스

마킹

영역 표시를 위해 소량의 소변을 여러 곳에 보는 행동

츄

씹는 욕구를 풀어 주는 장난감·간식

퍼피

생후 약 12개월 이하의 어린 강아지



멍케어 소개

우리 아이 맞춤형 AI의 시작

멍케어는 강아지 맞춤 케어 · AI 비서 · 건강 기록을 하나로 모은 반려견 케어 앱이에요. 우리 아이 프로필을 바탕으로, 성장 시기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I 등록 프로필 기반 전담 케어

등록된 아이별 맞춤 관리,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멀티모달 AI 비서 피드백

글·사진·음성 질문에 실시간 답변

시기별 전담 일정 및 팁

성장 시기별 핵심 일정, 유용한 양육 정보 자동 안내

AI 기반 건강 기록 & 분석

체중·식사·이상 증상을 기록하고 그래프로 모아 보기

유동적 시기별 맞춤 도움말

현재 성장 상태에 맞는 최적의 도움말 실시간 제공

통합 반려 가게부 자동화

말로 적는 지출 기록, 매달 나가는 돈은 한 번 등록하면 자동 기록

i 마지막으로 꼭 읽어주세요

이 가이드북은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건강·행동 문제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수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령·규정·과태료·검역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멍케어 앱의 AI 답변·분석도 참고용이며 진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앱 기능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멍케어

우리 아이 맞춤형 시의 시작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멍케어 둘러보기 meongcare.kr

문의 meongcare.app@gmail.com